

사진 촬영·활용 운영 원칙

교실의 기록은 남기되, 아이의 존엄과 가족의 선택권은 더 분명하게 지킵니다.

1 / 3

한 문장 원칙

촬영 목적·공유 대상·게시 채널·보유기간을 먼저 정하고, 동의받은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촬영·활용합니다.

1 촬영 전

- ☐ 촬영 목적이 보육 기록인지, 보호자 공유인지, 공개 홍보인지 구분합니다.
- ☐ 채널별로 동의를 나눠 받고, 미동의 아동도 같은 활동에 참여하도록 대안을 정합니다.
- ☐ 행사마다 연간 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2 촬영 중

- ☐ 아이가 싫다고 말하거나 몸을 피하면 촬영을 멈추고 이유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 ☐ 이름표, 출석부, 건강·가족 정보, 위치 단서가 함께 찍히지 않도록 화면을 정리합니다.
- ☐ 옷 갈아입기, 배변, 수면 중 노출 등 존엄을 해칠 수 있는 장면은 촬영하지 않습니다.

3 선택·게시·보관

- ☐ 목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장수만 고르고, 미동의 아동은 잘라내거나 식별되지 않게 처리합니다.
- ☐ 승인된 계정·기기만 사용하고 개인 메신저, 개인 클라우드, 개인 SNS로 옮기지 않습니다.
- ☐ 게시 종료일과 삭제 책임자를 정하고, 철회 요청이 오면 게시 위치와 복제본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유 범위는 세 단계로 구분

내부 기록

담임·업무 담당자만

제한 공유

해당 반 보호자 등

공개 게시

홈페이지·SNS 불특정 다수

아이의 뜻도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아이가 촬영을 원하지 않으면 멈춥니다. “사진 찍어도 괜찮아?”, “어디에 보여 줄 사진이야?”처럼 나에게 맞는 쉬운 말로 알리고 선택할 시간을 주세요.

연간 사진·영상 촬영 및 활용 동의서

기관이 실제 운영 채널과 보유기간을 채운 뒤 사용하세요. 항목별 동의 여부를 각각 표시합니다.

2 / 3

기관명 _____

적용 연도 _____

아동 성명·반 _____

법정대리인 성명·관계 _____

아래 항목은 선택 동의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기본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없으며, 공개 게시 미동의 아동을 위한 촬영·편집 대안을 마련합니다.

A. 내부 보육 기록

목적: 관찰 기록·상담 준비 | 항목: 사진·영상·음성 | 열람: 담당 교직원

보유기간: _____

☐

동의

☐

미동의

B. 보호자 대상 제한 공유

목적: 하루·행사 소통 | 채널: _____ | 열람: 해당 반 보호자

게시·보유기간: _____

☐

동의

☐

미동의

C. 기관 인쇄물·비공개 행사

목적: 소식지·수료 행사 | 배포 범위: _____ | 항목: 사진

이용·보유기간: _____

☐

동의

☐

미동의

D. 공개 홈페이지·SNS·홍보물

목적: 기관 활동 소개 | 채널·게정: _____ | 공개 범위: 불특정 다수

게시기간: _____ 플랫폼 처리·국외이전 등 별도 확인: ☐

☐

동의

☐

미동의

철회·열람·삭제 요청 창구 담당자: _____ 연락처: _____ 처리 방법: _____

본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고 항목별로 선택했습니다.

20__년 __월 __일 법정대리인 _____ (서명)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서식은 실무 예시이며, 기관은 실제 처리방침·위탁·제3자 제공·플랫폼 조건을 확인해 문구를 확정해야 합니다.

참고 원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개인정보 보호법 · 검토일 2026-07

게시 전 30초 점검과 철회 대응

공개 버튼을 누르기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요청이 오면 게시 위치와 복제본을 함께 추적합니다.

3 / 3

게시 전 체크리스트

- ☐ 게시 목적과 채널이 동의 범위 안에 있다.
- ☐ 사진 속 모든 아동의 해당 채널 동의 상태를 확인했다.
- ☐ 이름표·문서·위치·건강·가족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
- ☐ 아이를 놀림·오해·수치심에 노출할 장면이 아니다.
- ☐ 미동의 아동은 자르기·대체 컷 등으로 식별되지 않는다.
- ☐ 원본 파일의 저장 위치·권한·삭제일을 정했다.
- ☐ 댓글·공유·다운로드 등 게시판 기능을 최소화했다.
- ☐ 게시물 담당자와 철회 요청 창구가 분명하다.

게시판 운영 기본값

로그인·권한 있는 사람만 열람하도록 설정하고, 검색 노출·재공유·다운로드·댓글은 필요할 때만 켭니다. 제목·본문에는 아동의 전체 이름을 쓰지 않고, 게시 종료일에 담당자가 실제 삭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철회·삭제 요청이 오면

1 접수

요청자·대상·게시 위치 확인

2 차단

우선 공개 중지 또는 접근 제한

3 추적

원본·복제본·다른 채널 확인

4 회신

조치 결과와 남은 보관 근거 안내

식별 가능한 사진은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행사 사진이니 괜찮다”는 추정으로 게시하지 않습니다.

연결 자료 - 클릭 가능한 공공기관 원문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 ode=G010030000&nttId=1135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2024.12.)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 ode=G010030000&nttId=10896>

동의 없이 SNS에 사진이 게시된 분쟁조정 사례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2&mC ode=C040030000&nttId=11332>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ntsNo=275>